

# 2025년 부활절 메시지

롱아일랜드의 로렌스 C. 프로벤자노 주교

- 2025년 4월 16일 -

주의 첫째 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처형 당한 현실의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시대 혹은 개인적 공동체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겪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시간, 공간,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세례는 우리 각자가 가진 존엄성을 이해하는 수단입니다.

이번 부활절 시즌에는 현세에 존재하는 죽은 자와 임종 장소에 부활의 실재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이 좋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잊었거나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세요.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부활절의 기쁨을 전하세요.

이날엔 무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서도, 우리의 삶과 시대에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죽음을 짓밟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과 거룩함이 가득한 부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